

‘밀라노 외유’ 유정기 부교육감 등 행정조치

3700만원 들어 동계올림픽 출장
출장 총괄 부서 과장 별도 징계
유권단체등 관련자 신분상 조치
구체적 처분 수위는 비공개 유지

지난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장과 관련해 ‘외유성 연수’ 논란을 빚은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에게 교육청 차원의 신분상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2일 전북교육청 감사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최근 유 부교육감을 비롯해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교육전문직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마무리하고 신분상 행정조치 처분을 통보했다.

전북교육청 감사과는 처분의 구체적 수위와 관련해 “세부적인 처분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출장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총괄했던 해당 부서 과장에게는 별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담당 부서 관계자 등 5명은 지난 2



도교육청 밀라노 출장, 감사 결과 행정조치

지난 2월 유정기 전북교육청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학생 체육 영재 육성 관련 예산으로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방문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계자들에게 신분상 행정조치를 내렸다.

<사진=전북교육청>

월 학생 체육 영재 육성 관련 예산 3700만 원을 들여 6박 7일 일정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방문했다.

이후 교육 목적과의 부합성 논란과 신

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목적 외 예산 집행에 대한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세지자, 유 부교육감 일행은 출장비 전액을 자진 반납한 바 있다.

자체 감사를 통한 행정 처분은 일단락

됐으나, 올해 12월 임기 만료를 앞둔 부교육감과 간부진을 둘러싼 실태상 있는 문제 여부를 두고 교육청 안팎의 평가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성민 기자

새만금 헴프산업, ‘5극3특’ 성장엔진 달고 본격화

정부농생명바이오 핵심품목 선정
53ha 규모 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전북도가 추진해 온 새만금 헴프산업이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 새들과구를 맞았다.

정부가 지난 8월 26일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인 ‘5극3특’의 전북 3대 성장엔진으로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바이오통을 확정했다. 특히 농·생명바이오 분야는 전국에서 전북이 유일하게 성장엔진으로 선정됐으며, 핵심품목에 헴프 칸나비디올(CBD) 등 고기능 바이오소재가 포함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법·제도 개선과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기반으로 헴프 연구개발(R&D)과 실증을 본격화하고 기업 투자와 사업화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북도는 농·생명바이오 성장엔진을 통해 헴프의 유효성분을 활용한 고기능 바이오소재의 연구개발과 생산·실

증 기반을 구축한다. 고기능 헴프소재는 산업용 헴프에서 CBD 등 유효성분을 추출·정제해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바이오소재다.

또 R&D 분야에서는 헴프소재 전주기 사업화 협력모델 개발, 대량생산 공정 및 수출형 제품 개발, 품질관리 표준화 및 안전성 검증기술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구상하고 있다.

헴프 유효성분의 추출·정제·제형화 생산시설과 분석시스템·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통해 원료 생산부터 품질·안전성 검증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프라이덴텍, 한미양행, 리퓨터, 웨이브가이, 프랜시스 등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재배·추출·정제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헴프소재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제품 개발까지 연계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헴프산업 육성을 위해 그들

안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기업참여 확대, 새만금 산업기반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켜 규제 개선과 산업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발굴해 왔다.

이어 지난 8월 12일에는 새만금개발청 및 헴프 관련 7개 기업과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클러스터 조성화 규제특례 발굴, 재배·기술개발, 산업화 실증, 기업 투자 및 국내외 시장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화 거점이 될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 53ha에 재배·연구개발·실증·소재 및 제품 생산 기능을 집적해 헴프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예산에 클러스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 원을 반영했으며, 조속히 용역에 착수해 기업 수요와 새만금 임지 여건

등을 토대로 클러스터의 적정 규모와 핵심 기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송영길 “용혜인, 민심이 수용 쉽지 않아” 낙마 시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겸임’과 관련, “민심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낙마를 시사했다.

송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용혜인 장관후보자에 대한 민심이반’과 관련 “과연 이분을 성평등가족 장관으로 임명한 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용 장관후보자는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에 2번 당선된데 이어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사퇴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논란이 되고 있



용혜인 후보자



송영길 의원

다. 게다가 용 후보자의 남편이 용 의원이 대표로 있는 기본소득당에서 사무부총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용의원)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면서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사실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인데 누

로 20%대로 추락했으며 충청권에서도 부정평가가 64.9%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정평가 1위였던 대구경북지역은 64.3%로 서울과 충청권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또한 이 대통령의 지지기반이었던 인천·경기에서도 긍정 35.4%, 부정 63.0%로 부정평가가 크게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0%, 국민의힘 24.3%,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4%, 진보당 1.4%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3.6%, 무당층은 25.6%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한달 전보다 4.3%포인트 떨어졌으나, 반사이익이 받을 것으로 보였던 국민의힘은 내분으로 오히려 0.6%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여야이 지지도 하락에 따라 무당층은 19.7%에서 25.6%로 5.9%포인트 증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32.1%, 부정평가 57.9%로 조사됐고, 강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30.9%, 부정평가 61.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5.8%, 무선 ARS 94.2%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2026.

9.18.(금)

— 9.20.(일)

18:00~22:00

김제 관아와 향교 일원

김제

국가유산

야행

관아와 향교의 밤,

김제를 걷다

백년 만에 되찾은 김제 관아의 첫 문, 외삼문 복원이 시작됩니다

주최 | 김제시 후원 |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 제431회 정례회…결산·추경 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심사
교육청 제2회 추경안 적정성 검토
조례안 심사·민생 현장 소통 병행
18일 본회의서 안전 심의·의결

전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3일부터 18일까지 제43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6일 간의 정례활동을 펼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3일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시작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 전

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조례안과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이후, 도내 주요 사업장 및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



김희수 의장

자치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 지난해 수입과 지출, 예비비 지출의 적법·타당성을 면밀히 심의하고 함께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정밀 심사해 대안 및 개선책을 마련한 뒤 본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추경예산안, 결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제431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한다. 김희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을 철저히 검증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해수욕장 암체 알박기 근절법’ 발의

불법 야영·물품 방치 제재 강화
과태료 10만원→50만원 상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매년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내 텐트·캠핑카 등의 무단 장기 방치 및 불법 야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해수욕장 암체 알박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재 및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그늘막·캠핑용품·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 행위와 야영용품·취사용품·자동차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 등 관리청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법 점유에 따른 이익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제재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이나 ‘자연공원법’의 경우 지정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윤준병 의원

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수욕장 역시 단속 및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불법 야영 및 용품 방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유사 법률 수준인 5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해수욕장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쾌적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공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의 암체 같은 텐트·캠핑용품 장기 방치와 불법 야영으로 인해 다수의 피서객이 눈살을 찌푸리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숨방방이’ 수준에 불과했던 10만 원의 과태료로는 무단 점유 행위를 막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 수준으로 정상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수욕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열린 도지사실’ 첫 운영…도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도민 의견 25건 중 10건 대면 논의
바이오·청년 등 정책 제안 청취
소통 과정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반영하는 현장 소통 창구를 열었다.

도는 2일 도청 1층 열린 도지사실에서 도민과 도지사가 직접 마주 앉아 다양한 제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열린 도지사실’을 시범 운영했다.

열린 도지사실은 민선 9기 도정의 새로운 소통 창구다.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도민의 정책 제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도지사가 직접 듣고 관계 부서와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참여형 소통 모델이다.

전북도는 지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도 누리집을 도민 의견 25건을 접수했다. 소관 실·국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대

화의 필요성과 시급성, 제안 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10건의 대면 안건을 선정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내수면어류 홍보 확대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전북 바이오기업 허브 구축, 전북형 병원동행·생활동행 도입, 청년 체감형 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논의됐다. 무형유산 전승체계 개선,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지원 확대, 남원시 람판 국가하천 승격, 가야문화유산 관광화 전략 등 지역발전 위한 제안도 함께 다뤘다.

특히 행사는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도민과의 소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도민도 주요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참여의 폭을 넓혔다.

대면 안건으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논의하지 못한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뒤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답변한다.

도는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사진=전북도>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시범 운영 과정의 개선점을 보완해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선경 소통기획과장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 폭을 더욱 넓히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무 역량 제고

도·14개 시군 담당자 150여명 참여
시설물안전법 법령 의무사항 교육
교량·터널 등 현장 사례 중심 진행

전북도가 노후 시설물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와 시군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2일 도청에서 도와 14개 시군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시설물안전법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기인사 등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담당자들의 관련 법령 이해와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물 안전관리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등급별 점검 주기, 결과 제출 기한 등 법정 의무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해야 하는 전문 분야다. 도는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담당자 간 업무역량 편차를 줄이고 시군의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가 시설물안전법의 주요 내용과 관리주체가 준수해야 할 법정 의무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법률전문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와 주요 사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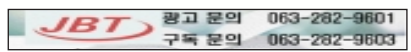
특히 시설물안전법 총괄부서뿐만 아니라 교량·터널·옹벽·상하수도·건축물 등 개별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실무부서 담당자들도 참여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시설물 안전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담당자의 전문성이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



정 의무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일자리페스티벌 개최… 66개 기업 한자리

전북도가 도내 우수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의 장을 연다.

도는 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 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2026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업과 구직자의 현장 만남을 통해 채용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24개 기관이 함께한 올해 페스티벌에는 현장 참여기업 46개사와 온라인 참여기업 20개사 등 모두 66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장 참여기업은 지난해 37개사보다 9개사가 늘어 구직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며, 이들 참여기업은 현장 채용 상담과 면접 등을 거쳐 20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행사장은 기업채용관과 취업지원관, JOB체험관 등 모두 73개 부스로 운영

된다. 기업채용관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 K-푸드·바이오, 금융·서비스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사회복지·돌봄 등 생활 밀착형 분야 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도 참여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지원관에서는 청년과 중장년 등 구직자 특성에 맞춘 취업·진로 상담과 경력경로 설계, 지역대학 연계 직업설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 등 취업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JOB체험관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전북도일자리센터 누리집에 온라인관을 개설해 20개 간접 참여기업의 기업정보와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구직자에게도 입사 지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1.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2. 횡단보도에서는 멈춤

3.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4. 급제동및 급출발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

검역본부, 베트남산 ‘수입 금지’ 식물 적발

6개월간 4.3톤 불법 수입·유통… 국내유통 주도자 2인 검찰 송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이하 ‘금지품’)'를 불법 수입 및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수입된 금지품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금지품 수입과 유통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일명 ‘포터’)을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 및 기내 수화물로 나눠 들여오게 했으며, 이를 넘겨받은 도매인 B는 국내 판매를 위해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하고 사회관계망(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 사진 및 가격 등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소매인들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각자의 사회관계망(SNS)에서 금지품을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도매인 B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한 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보고, 불법 수입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확인했으며, 2024년 12월부터~25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해 유통한 물량을 구아바·몽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 약 4300kg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와 소매인 C가 금지품을 국내에 유통한 것 외에, 직접

수입에 가담한 혐의도 확인해 이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입책 A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며, 여행객을 이용한 금지품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에는 불법 수입된 금지품 국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어 불법 수입·유통 행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사와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식물방역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된다.

/김영태 기자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주민제안 반영 ‘어린이 자전거 안전등’ 설치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 뜻 모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혁신공공기관들과 지난 1일 어린이 자전거 안전등 ‘아이라이트(I-Light)’ 나눔 행사를 가졌다.

‘아이라이트(I-Light)’ 나눔 행사는 상반기 공사가 주최한 주민참여위원회 간담회 통한 자전거 이용 통학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나눔을 위해 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함에 기탁했다.

이번 공사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등 150여개를 국토정보공사 다목적구장에서 설치 방법과 안전주행 수칙 등을 안내하며 지역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사이클 선수단과 감독이 일일 교사로 나서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안전 주행을 알려주고 직접 시범 주행을 선보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안전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의 ‘전북도의회 의정대표단 초청 간담회’ 개최

주요 현안 및 기업애로 공유… 도의회·경제계 협력방안 모색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일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정대표단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지역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역경제 주요 현안과 기업애로를 공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회와 경제계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주상공회의소는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경영비용 상승, 인력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정책과제로 △지역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정책적 지원 확대 △경

제단체 기업지원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 △투자기업과 지역기업 간 거래 확대 및 공급망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와 경제계 간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기업애로를 공동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생기는 만큼,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조려와 예산,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 상공연계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도의회와 경제계 간 소통과 이해를 넓히고, 기업



전주상의는 2일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정대표단과 전주상의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의정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상의>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은 투자와 고용, 지역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도의회와 경제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와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경제와 기업 현안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 금융특화도시 도약 ‘제7회 지니포럼’ 개최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 도시 금융·경제 교류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국민연금공단·KB금융이 주최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제7회 지니포럼(GENIE Forum)’이 오늘부터 4일까지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에서 개최된다.

지니포럼은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금융·경제 네트워크 행사다.

올해는 ‘지정학적 경제변동성을 넘어, 글로벌 자산운용중심도시로의 비상’을

주제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 자산운용 전략과 전북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KB금융이 새롭게 참여해 KB금융세미나와 대학생 모의투자 경진대회 등 민간 금융의 전문성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행사 첫날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C)에서는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운용 전략’ △NPS 포럼에서는 ‘개성 스토어트십 코드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방향’을 △KB금융세미나에서는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을 주제로 전문적인 논의를 펼친다.

둘째 날에는 ‘NPS와 함께하는 JTV 포

럼’에 이어 열리는 ‘지니톡북 금융도크 콘서트’에는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 파인더 단장과 이진우 3PRO TV 부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금융·경제 흐름을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핀테크 스타트업 비즈 밋업, 청소년 금융 골든벨, 금융기관 홍보부스, 지역 서점 연계 ‘지니책책’ 팝업존 등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니포럼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https://genieforum.net>)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사진=국민연금공단>

바이오진흥원 ‘전북 푸드테크 미래기술 심포지엄’ 성료

전문기관·기업 등 분야별 협력방향 논의

2일 바이오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전북 푸드테크 미래기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익산시가 주최하고 바이오진흥원이 주관했으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협조기관으로 참여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식물성 대체식품 △친환경 식품포장 △3D 식품프린팅 등 미래 푸드테크 3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산업 동향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종

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에서는 완공을 앞둔 연구지원센터 운영 방향과 기업 연계를, 친환경 식품포장 분야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에 대응한 전북 식품·포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 3D 식품프린팅 분야에서는 맞춤형·고령친화식품 등 미래 식품시장과 지역 농생명·식품산업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봤다.

특히 식물성 대체식품과 친환경 식품포장 분야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연구·기업지원 기반과 연계해 향후 과제를 살펴봤으며, 3D 식품프린팅 분야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개발 및 산업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관계



2일 바이오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전북 푸드테크 미래기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바이오진흥원>

기관과 공유하고, 지역 푸드테크 분야의 기업지원과 기관 간 협력은 물론 향후 신규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류와 연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사진=신협사회공헌재단>

신협,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복구 성금 전달

신협사회공헌재단(이하 신협재단)은 전주시 송천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동 화재 피해지역 지원에 성금 3천만원을 지난 1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양춘제 신협중앙회 이사, 조지훈 전주시장과 전북 지역 신협 이사장들이 참석해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뜻을 모았다.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며,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생업 복귀와 생활 안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인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빨리 피해 지역의 복구가 이뤄져 상인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협재단은 재난·재해 발생 시 전국 신협과 함께 성금 모금 및 금융지원 △2020년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1억원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 지원금 13억원 △2025년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금 9억원 △2026년 거제·통영 호우 피해 지원금 5천만원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동금융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맞춤형 교육정보 ‘군산 꿈이음’ 통해 확인… 시범운영 시작

군산시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진로·진학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교육 정보 통합플랫폼 ‘군산 꿈이음’ 누리집을 이달부터 2027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군산 꿈이음’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교육정보를 통합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교육 수요와 지역 교육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구축했다. 누리집에서는 진로 탐색 및 진학정보 제공, 지역 교육프로그램 검색·신청, 지역 교육자원 아카이브 등 다양한 교육정보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I를 이용해 학습 관련 궁금증을 묻고 답할 수 있는 ‘AI 꿈지기’를 비롯해 전문가와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화상 서비스 ‘꿈이음 멘토링’ 등도 연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시민과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이용 중 확인된 불편 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누리집 내 ‘꿈이음 소통창구 1:1 문의’에 남기면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군산 꿈이음’은 포털사이트 검색,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장애는 틀림 아닌 다름” 정읍시, 장애인식 개선교육

정읍시가 2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의 장애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식 개선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미 강사가 맡았다. 유 강사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사례 속 차별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 일상과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배려와 실천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인식을 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수송동, 유관기관 순방 현안 해결 및 협력 체계 구축

군산시 수송동(동장 김도현)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위해 수송지구대를 비롯한 관내 주요 유관기관 8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지난 8월 3일 부임한 김도현 수송동장은 관내 경로당 3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건의 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9월부터는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방문에 나선다. 1일 수송지구대에서 치안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소방서 등 7개 유관기관을 차례로 찾아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치안,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와 지역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수송동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김도현 수송동장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수송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정부안부터 또 1조 찍었다

역대 최대 1조 24억 확보… 푸드테크 등 미래 먹거리 선점

익산시가 국회 최종 심의 전인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24억 원’을 확보하며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다. 이는 국회 증액을 거치지 않은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지난해 1조 7억 원에 이어 거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다. 이번 결실은 민선 9기 출범 직후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를 씬 없이 오가며 기획 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설득한 최정호 시장의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과 이춘석(익산갑)·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가 한 팀으로 뭉쳐 일구낸 합작 품이다. 가장 돋보이는 대목은 도시의 미래 지형을 바꿀 첨단 신규사업(162억 원 규모)의 대거 반영이다.

익산·군산, 맞춤형 복지 강화 2(題)

익산 ‘다이로움 밥차’ 운영 재개

익산시는 한 달여간의 다이로움 밥차 재정비를 마치고, 2일 합열 돌출공원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음식 200인분을 조리해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부식도 함께 지원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을 운영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상담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다이로움 밥차’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거리 노숙인 등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구축(10억 원) △국립 한의보건의료연구원 건립(2억 원)을 정부안에 편입시키며 전북자치도의 AI 산업 육성 기조와 발맞춰 미래형 식품산업 전환은 물론 한의보건의료 첨단화의 선봉에 설 수 있게 됐다. 여기에 △K-푸드 창업사관학교(22억 원) △청년창업 스마트 공유공장 구축(3억 원) △식물기반식품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25억 원)이 나란히 포함돼, 청년들이 익산에서 창업하고 정착하는 청년 창업 생태계의 기틀을 완성했다. 시민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평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10억 원) △복합포진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10억 원) △봉안당 설치(21억 원) 등도 정부안에 안착했다. 주요 계속사업(9,862억 원 규모)도 순항한다.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289억 원)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120억 원) 등이 안정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전북권 산재전문 병원 건립’과 맞물려, 첨단 산업 육성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익산 대전환’의 입체적 청사진이 완성됐다. 익산시는 정부안에 담긴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쯤없이 지켜내는 한편, 미반영된 미래 성장 기반 사업들을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국회 증액 목표 사업은 △홀로그램 기반 AX(인공지능 전환) 기업 사업화 확산 △지역기반 의료AI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 등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정부안 단계부터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익산의 미래 신산업 전환과 민생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정치권과 행정이 하나로 응답한 결과”라며 “확보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하고, 국회 최종 의결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핵심 미반영 사업을 추가 확보하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통합돌봄 공동체 군산’ 구현

군산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27개 읍면동 담당계장과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읍면동 전담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제도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대상을 어떻게 찾아내고, 무슨 서비스를 드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군산시 통합돌봄 전담 부서를 비롯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은 △대상자 발굴·신청 △조사·판정 △통합지원 계획 수립 등 통합돌봄의 전 과정을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다뤘다. 군산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기다리는 복지’에서 ‘먼저 찾아가는 통합돌봄’으로 행정 방향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와 지역사회 자원, 읍면동 현장 정보를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읍면동 현장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다져, 시민이 찾기 전에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통합돌봄 공동체 군산’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보급

456대 추가 지원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산시 등록 차량 중 전기차의 비율을 현재 4%에서 2030년에는 1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두 차례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총 564대(승용 490대, 화물 73대, 버스 1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총 456대(승용 300대, 화물 150대, 버스 6대)

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군산시에 주소와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이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자가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보조금 지원신청 절차는 개인이 아닌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진행한다. 보조금 대상자로 확정된 구매자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군산시 제작·수입사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루부에서 정한 차종별 국비지원금에 지방비지원금을 합산해 차종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중·대형 승용차 최대 1,210만 원, 소형 화물차 최대 1,750만 원, 소형 승합차 최대 3,000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부터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하늘공원 주차장 82면 신설 착공

9억 5천만 원 투입

익산시가 명절마다 주차난을 빚었던 익산 하늘공원의 교통 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차 공간 대폭 확충에 나선다. 익산시는 익산 하늘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본격 착공한다고 2일 밝혔다. 4,710㎡ 부지에 총 82면 규모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9억 5,890여만 원이 투입된다. 이번 주차장 확충 사업은 매년 명절과 한식 등 추모객이 집중되는 시기마다 발생했던 진입로 정체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실시설계와 7월 실시

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지난달 공사 발주를 마쳤다. 이달 착공에 들어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신설 주차장은 이용객 편의를 극대화한 맞춤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일반형 37면과 함께 단체 참배객을 위한 대형 버스 6면을 포함한 확장형 28면, 입산부·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가족 배려 10면, 친환경 전기차 4면, 장애인 전용 3면 등이 체계적으로 배치된다. 특히 시는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성묘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추석 명절 특별 교통·추모 종합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추석 당일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공설운동장에서 공설묘지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시는 참배객 불편을 막기 위해 임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진출입로에 교통 통제 인력을 집중 배치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할 방침이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국장은 “이번 주차장 확충은 유가족들이 한결 여유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돕는 필수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라며 “공사를 완벽히 마무리해 전국 으뜸가는 품격 높은 추모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20대부터 혈관 건강 챙긴다”

정읍시, 9월 집중 홍보

정읍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9월 한 달간 지역 8곳에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과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다. 보건소는 이 기간을 포함해 한 달 동안 시민들이 20대부터 자신의 건강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친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은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는 오는 4일 영원면 사회

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정읍아산병원 원과 소성면 행정복지센터, 정읍소방서 등 지역 8곳을 찾아 ‘혈관지킴이 건강부스’를 운영한다. 10일과 11일에는 대한노인회와 정읍아산병원에서 어르신 13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예방·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건강교육을 진행한다. 15일에는 철보 섬진강탐노인복지관, 22일에는 제일교회 노인대학에서 지역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도전! 건강백세 골든벨’을 운영한다. 참여자들이 건강상식 문제를 풀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예방활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NS 푸드페스타 익산’ 준비 착착

내달 16~17일 개최

익산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NS홈쇼핑과 ‘NS 푸드페스타 2026 익산’ 사전보고회를 열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과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관람객 동선을 고려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 확대부터 다채로운 문화 공연까지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NS 푸드페스타 2026 익산’은 내달 16~17일 이틀간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열린다. 올해는 관람객이 직접 보고, 맛보고,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체류형·오감만족 축제’로서의 특색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대표 프로그램인 ‘NS 푸드페스타 요리경연’을 비롯해 직접 요리에 참여하는 쿠킹클래스와 익산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미식 투어가 운영된다. 여기에 쿠킹쇼와 버스킹 공연 등을 더해 관람객이 미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축제의 재미를 높인다. 시는 NS홈쇼핑과 남은 기간 프로그램과 현장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람객 편의와 안전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NS 푸드페스타 2026 익산’ 요리경연대회 가족 부문 참가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하며, NS홈쇼핑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승강기 간헐 사고 합동훈련

정읍시가 지난 1일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승객이 층 사이에 갇힌 상황을 가정한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정읍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읍소방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 정읍시 여성민방위대가 참여했다.

시는 승강기 이용 중 정전이나 고장으로 갇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현장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훈련을 마련했다. 훈련에 앞서 노영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서부지사장이 승강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 비상 통화 장치 사용법, 수동으로 문을 열 때의 주의사항과 이용자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춰 승객이 갇힌 상황을 가정한 실전훈련이 진행됐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비상



<사진=정읍시>

통화 장치와 119를 통해 사고를 알리고, 유지관리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승강기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소방대원도 승객을 구조하며 신고부터 현장 확인, 구조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기적인 교육과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정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해경, 기관장 없이 조업한 어선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한 52톤급 근해자망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정도 남서쪽 약 124Km 해상에서 근해자망어선 A호(52톤·승선원 13명)를 검문했다. 확인 결과 A호는 지난달 26일 기관장이 발목부상으로 하선한 뒤 승선시키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관장이 하선해 승선원이 변경됐음에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을

상대로 기관장 미승선 및 승선원 변동 미신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관장 등 선박직원은 승선시키지 않으면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출항 전 기관장 등 선박직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 인구 전북 4위 올라섰다

주민등록 인구 10만642명 기록
젊은 가구 유입…청년인구 29.1%
합계출산율 4년 연속 상승

완주군이 지난해 5월 36년 만에 인
구 1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주민등
록 인구 기준 10만 642명(외국인 포함
105,990명)을 기록하며 전북 14개 시·
군 가운데 4위에 올라섰다.
이는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완주군이 지속적인 성
장세를 이어가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성장과 달라진 도시 위상이 더욱 뚜렷
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완주군의 인구 증가는 2022년부터
본격화됐다.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5,405명이 증가하며 전국 군 단위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했으며, 꾸준한 증가세
가 이어져 지난해 5월에는 인구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을 포함

한 총인구 기준 '전북 4대 도시'로 도약
했고, 올해 8월에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도내 4위에 올랐다.
완주군은 이러한 성장의 배경으로 적
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와 삼봉·운곡지구 등 주거공간 확충,
교통·문화·체육·돌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비롯한 지속적인 정주여건 강
화를 꼽고 있다.
완주군의 인구 성장은 완주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는 젊은 가구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완주군이 2020년 이후 혼인신고 사
례를 분석한 결과, 혼인 전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않았으나 결혼
을 전후해 함께 완주군으로 전입한 사
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젊은 가구의 유입과
정착에 힘입어 완주군의 청년인구 비
중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2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젊은 가구의 유입과 정착은
출산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
어지고 있다. 완주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7명, 2023년 0.89명, 2024년
1.09명, 2025년 1.20명으로 4년 연속 증
가세를 이어갔다. 출생아 수도 627명으
로 전년 544명보다 83명, 15.3% 증가해
젊은 가구의 유입과 정착이 실제 출생
아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완주군은 이번 인구 4위 진입을 계기
로 '전북 4대 도시 완주'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이를 군민의 자긍심과 지
역 정체성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군은 앞으로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교통·교육·문화·의료 등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도시 기능을 한
층 강화하는 한편, 수소특화 국가산업
단지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등
미래산업을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2027 정부예산안 주요 사업 반영 ‘성과’

지리산권 정비 등 부처안대비 증액
도자전시관·경찰수련원 예산 확대

양충모 남원시장이 민선9기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 단계부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직접 찾아다니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남원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
다.
양 시장은 인수위 단계부터 기획예산
처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에 힘을 쏟
아왔다.
정부예산(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인 가운데, 남원시는 정부예산(안)
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지리산권 탐
방로 정비사업 23억원(부처안 0원), △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 10.7억원(부처
안 2.06억원), △연합형 행복가속사 건
립 22.85억원,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40억원(부처안 5억원),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20억원 등 당초 부처안
대비 증액 반영됐다.
또한 △하도지구 풍수해생환골 정비
사업, △임암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종합정비사업, △귀석지구 배수개선사
업, △남계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자연
재해 예방사업도 적극 대응하여 9월중
최종 예산 배정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민선9기 출범 이후 대응한 신규
사업 가운데 지리산권 탐방로 정비사
업과 국지도60호선 남원 인월 ~ 산내
구간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
진되는 사업으로 시의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역의 성장을 도모할 사

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남원시
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국
립 지리산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국
지도 60호선 개량사업 등 정부 예산 편
성단계에서 사전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던 사업들의 국비 확보에 집중하
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삭감
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향후 국립의전원 최종 대상지
선정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고시에
따라 내년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양 시장은 국회상주반을
운영하고 주요 사업별 심의동향을 면
밀히 파악해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과
교예위원을 상대로 국비 추가 반영
을 위한 밀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제15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 ‘성황’

순창·구례·곡성·담양400여명 참석
파크골프·게이트볼대회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구례군·곡성군·담양군 등
4개 군으로 구성된 장수벨트행정협의
회가 공동 주최한 '제15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가 2일 곡성군 문화체육관
에서 열렸다.
이날 동악파크골프장과 동악축구장
일원에서는 '제3회 구곡순담 장수노인
파크골프·게이트볼대회'도 함께 진행
됐다.
올해 100세 잔치는 '인생을 살아보니,
웃음이 보약이로다'를 주제로 장수 어
르신과 가족,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주인공인 장수 부부들은 교
복 착용 퍼레이드로 학창 시절의 추억
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입장을 펼치



<사진=순창군>

고, 이후 행사장에 마당극과 만담 콘서
트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다.
같은 날 열린 파크골프·게이트볼대
회에는 4개 군에서 200여 명의 어르신
선수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경기
를 통해 기량을 겨루는 동시에 서로 안
부를 나누고 친목을 다졌다.
특히 100세 잔치와 체육대회가 함께

열리면서 4개 군 장수 어르신들이 한자
리에서 교류하고, 건강장 노년의 의미
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4개 군
이 꾸준히 교류하고 협력해 구곡순담
100세 잔치가 대표적인 장수문화 행사
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
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서 전국 중고소프트테니스 유망주 ‘열전’

8일까지 6일간 추계연맹전
전국 58개팀 450여 명 참가

전국의 중·고등학교 정구 유망
주들이 순창에 모여 코트를 뜨겁
게 달군다.
순창군은 오늘부터 8일까지 6일
간 공설운동장 실내다목적구장 및
순창제일고등학교 코트 일원에서
'2026년도 전국남녀 중고 소프트
테니스 추계연맹전'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국중고등학교소프트테니스연
맹이 주최하고 순창군소프트테니
스협회와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
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
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58개팀, 선
수와 지도자·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남녀 15세 이하 중
등부와 18세 이하 고등부를 대상

으로 단체전과 개인복식, 개인단
식, 혼합복식 등 경기가 진행된다.
대회는 3일 대표자회의와 대진
추첨을 시작으로 4일부터 본격적
인 경기에 들어간다. 대회본부는
경기 진행 상황과 기상 여건 등에
따라 경기 일정과 코트 배정을 탄
력적으로 조정해 참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활한
대회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순창군은 전국 규모의 각종 스
포츠대회를 꾸준히 유치하며 스포
츠와 관광이 함께하는 체류형 스
포츠 도시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대회 기간에도 참가 선수
와 지도자, 관계자들이 순창에 머
물면서 지역 내 다양한 소비활동
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100회 향하는 춘향제…‘역대 춘향’ 찾는다

춘향 기수·연락처 등 신청 접수
본인·가족·지인 참여 가능

남원시가 ‘역대 춘향을 찾습니다’
모집을 통해 춘향선발대회와 함께해
온 역대 춘향을 찾는다.
1950년부터 이어져 온 춘향선발대
회는 춘향제의 역사와 함께하며 남원
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해 왔다.
특히 춘향제가 100회를 향해 나아가
는 지금, 역대 춘향을 다시 찾는 것은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어
갈 춘향제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아동친화도시協 몽골 아동 기금 7천만원 전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통해 지원
유희태 원주군수 협의회장 참여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
의회(회장 유희태 원주군수)가 2일 유
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를
통해 국외 아동을 위한 기금 7천만 원
을 전달했다.
이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열
린 기금 전달식에는 협의회장인 유희
태 원주군수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전달된 기금은 몽골 유목 지역 아
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원 바그,
원 스쿨(One Bagh, One School)’사업
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학교
접근성이 떨어지는 유목 지역에 지역
기반 학교를 설립해 아동들이 부모와
떨어지지 않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한다.
협의회는 이번 기금 지원을 통해 교
육 소외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다움관 AR 체험전시 ‘남원의 칼’ 개막

장인 문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남원의 오래된 기억이 뜨거운 불꽃
과 첨단 기술을 만나 다시 살아난다.
남원시는 4일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 남원다움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체험형 전시 ‘남원의 칼’을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6년 지역기반 가
상융합 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으
로 확보한 국비 8,400만 원을 활용해
남원 장인들의 삶과 솜씨를 첨단 기
술로 엮어낸 새로운 형태의 기록문화
콘텐츠다. 관람객은 AR 체험 테이블
에서 직접 대장장이가 되어 철을 달
구고 두드리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
할 수 있으며, 함께 조성된 아카이브
패널을 통해 사라져가는 지역 장인들
의 발자취와 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

게 되새길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기존 ‘남원의 삶’ 기
록 전시와 인력거 혼합현실(MR)에
AR 콘텐츠를 새롭게 더해 ‘보고, 듣
고, 체험하는’ 복합 아카이브 공간으
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
특히 남원다움관은 이번 사업을 포
함해 2026년까지 국가공모사업에 총
10회 선정되는 패거리를 거두며, 지역
의 일상과 역사를 기록하고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하는 아카이빙 역량을
재입증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전시는 점
차 잊혀가는 지역 장인들의 기술과
삶의 흔적을 기록하고, 이를 첨단 가
상융합 기술과 결합해 시민들께서 직
접 경험할 수 있도록 몰려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추석 공감마켓’ 성료
공공기관 연계 판로 확대

남원시는 2일 남원시청 1층 로비에서 관
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지원을 위한 ‘추석 명절 공감마켓’을 성황
리에 개최했다.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와 남원시사회적
경제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
는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 15개소(사회적
기업 6개소, 마을기업 6개소, 협동조합 2개
소, 지역공동체 1개소)가 참여해 직접 생산
한 제품을 홍보·판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남원의 생활 인공로
구성된 ‘남원 팬슈머’들이 동참해 현장 취
재와 SNS 홍보 활동을 펼치며 기업 알리기
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남원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인연을 맺고 SNS 홍보, 마케팅 자
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
고 있는 서포터즈로 이날 현장에서 직접 체
험한 기업과 제품의 매력을 각자의 채널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이번 공감마켓은 현장 판매뿐만 아
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연계 추진해 판로 확대의 실효
성을 높였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민
과 공공기관이 함께 소비하며 지역 내 착한
소비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
제 기반을 다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공직자 150여 명 참여

순창군은 지난 1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
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한 ‘2026년 장애인식개선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실과원소와 읍·면 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과 업무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
개선 전문강사인 김경 (사)공감인어스 대
표가 맡아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세
상을 바꾸는 시선으로’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 강사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 이해를 비롯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장애인의 자율성과 자립, 장애인 편
의시설의 접근성과 이동권 등에 대해 다양
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시설과 제도, 생활
환경 등 장애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을 살펴보며 장애를 바라보는 시
각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
원들이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
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시니어 독서동아리 육성
우수프로그램 선정 사업비 확보

완주군이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주최
‘2026년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
정돼 사업비 470만 원을 확보하고, 시니어
를 위한 독서·예술 프로그램 ‘오늘은 그림
을 읽는다’를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
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고운삼
봉도서관에서 2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오
는 10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펼친다.
프로그램은 일회성 강좌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시니어들이 도서관
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생각을 나누며 독서
동아리를 결성해 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문학과 동서양 미술을 아우르는
알찬 내용으로 꾸렸다. 이아라 문학작가의
독서동아리 구성법을 시작으로 장영 미술
평론가의 서양미술, 윤대라 작가의 민화 체
험, 박종갑 경희대학교 교수의 한국·동양미
술 강연까지 폭넓게 이어진다.
완주군은 강의와 더불어 도서관 자료실
의 예술 장서를 직접 찾아 읽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함께 운영해, 참여자들이 종강 이후
에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와 교류를 지
속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민들레봉사단, 추석 맞아 익산시에 백미 10kg 24포 기탁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익산시 평화동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전해졌다.

익산시 평화동은 2일 '민들레봉사단'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백미 10kg 24포(1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명절을 준비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저소득층 24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민들레봉사단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품을 전달하고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만택 민들레봉사단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백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봉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경희 평화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민들레봉사단에 감사드리다"며 "기탁해 주신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진안군, 성인문해 학습자들 배움의 노력이 꽃피운 결실

진안군 성인문해 프로그램 학습자들이 '2026년 제15회 전국·전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공모전'에서 나란히 수상하며 배움의 결실을 맺었다.

진안군에서는 올해 공모전에 총 25점(시화 21점, 엽서쓰기 4점)을 출품하여 총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시화' 부문에서는 동향면 은빛문해교실 소속 김인순(75)씨가 특별상인 '글아름상'을 수상했다.

전북 '시화' 부문에서는 진안읍 은빛문해학교 소속의 양애녀(81)씨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동향면 은빛문해교실 소속 이귀례(75)씨와 백운면 배움마루교실 소속 성영희(70)씨가 나란히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9월 문해의 달을 맞아 '문해, 배움의 시간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한마당'에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 성인문해 학습자들의 소중한 배움의 결실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학습자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갈빈 기자

페이퍼코리아, 군산시에 1천만원 상당 백미 기탁

백미 10kg 308포 전달 소외계층 명절 지원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2일 페이퍼코리아(주)(대표이사 문성운)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 10kg 308포(1,0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페이퍼코리아(주) 문성운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 임직

원이 직접 동참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페이퍼코리아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기탁해 주신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군산시 외항로에 위치한 페이퍼



코리아(주)는 194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제지기업이자 향토기업으로, '인간중심의 열린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매년 2회 명절 성품 전달, 다울봉사단 사회봉사, 1사 1공

원 가꾸기 등 다양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청솔라이온스클럽·벼농사연구회, 장학금 기탁

지역 학생들 꿈 응원

정읍청솔라이온스클럽(회장 박영주)과 정읍시벼농사연구회(회장 최기웅)가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두 단체는 지난 1일 정읍시청에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꾸준한 나눔과 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혜택의 지역사회 환원이 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정읍청솔라이온스클럽은 지역 학생들의 성장에 힘을 보태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 100만원을 마련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정성을 모아준 두 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기탁한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군 외국인 주민들 “한식으로 통하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양일간 완주군 가족센터 행복조리관에서 '케이(K)-푸드 쿠킹클럽'을 운영했다.

외국인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김밥과 잡채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강사의 시연을 본 후 조별로 역할을 나누어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함께 만들었

며, 완성된 음식을 함께 맛보면서 각자의 나라에서 즐겨 먹는 음식과 음식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처음 만난 참여자들도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높였다.

또한 한국어와 참가자 모국어를 함께 표기한 레시피를 제공해 수업이 끝난 후에도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임진섭 동원샘물 남원대리점 대표, 성금 기탁

동원샘물 남원대리점 임진섭 대표가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5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누적 기부액은 1,000만원에 달한다.

임진섭 대표는 고향사랑기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무더운 여름철 얼음 생수 나눔 봉사를 자제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는 남원시가

추진하는 얼음생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탁은 일회성 기부를 넘어 고향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진섭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와 생수 나눔, 재난지역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제 교월동 주민자치위,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봉사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서창배)가 주민자치 상향식 현안사업으로 관내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잡목 제거와 제조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평소 고령 등의 이유로 주택 주변 환경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찾아 잡목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평소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생활환경을 직접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어져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서창배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제안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군산 서수면 보듬이 지사협 착한가게 2곳에 현판 전달

군산시 서수면 보듬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명재, 민간위원장 이주익)는 2일 착한가게 나눔에 동참한 '서수임피조경(대표 박덕수)'과 '별미에프앤비(대표 김경민)'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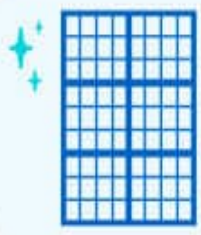
이번에 착한가게에 가입한 두 기업은 매월 일정 금액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할 예정이다.

박덕수 서수임피조경 대표는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별미에프앤비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에어컨 전기세 절약 방법



사용 전 청소하기



안전 점검하기



환기 시켜주기



정속형은 껏다 켜기



인버터형은 계속 틀기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一事一言〉



1조 2천억 품은 농진청, 전북에 직접·과감한 지원책 내놓아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단순 R&D 넘어 직접적 자주적 지원
농생명 생태계 투자로 응답할 때

농촌진흥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 2,134억 원 규모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일상화, 식량 안보 위기, 그리고 농촌 소멸이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 발표된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농업을 미래 첨단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반영이다. 스마트농업 확대, AI 기반 데이터 농업 기술 보급, 저탄소 농업 R&D 등 미래 농업의 핵심 과제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러나 1조 2천억 원이 넘는 거대 예산의 숫자에 환호하기에 앞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전북에 동지를 둔 중앙 행정기관의 막대한 예산이 과연 그 타전을 제공한 전북 도민과 현장 농민들의 삶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바꾸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농진청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다.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5대 국책기관이 집결하면서 전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의 외형을 갖췄다.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온기나 농가 소득 증대 효과는 여전히 국책기관의 화려한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언컨대, 농진청은 혁신도시 이전기

관으로서 전북도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전북은 농진청과 관련 기관들을 품어 안기 위해 수많은 행정적·공간적 자원을 투입했고, 도민들은 지역 발전의 열망을 담아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렇다면 농진청 역시 단순히 전북을 '부지 제공지'나 '연구소 위치 지역' 정도로 취급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R&D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터잡고 있는 전북 지역사회와 농업 현장을 향해 과감하고 직접적인 '지역 특화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다.

우선, 농진청의 첨단 R&D 성과와 1조 2천억 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전북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특화 사업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농생명 산업 지구 지정 및 특구 조성과 연계하여, 도내 농가에 스마트팜 기술과 고부가가치 품종을 무상 또는 과격적인 조건으로 우선 보급하는 실질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실험실 안에서만 맴도는 R&D가 아니라, 전북의 논과 밭을 최첨단 기술의 '우선 실증 인프라'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성과를 도내 농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도내 대학·지역 기업과의 직접적인 공동 연구 예산 배정 등 도내 경제에 직접 실타를

들이붓는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벼랑 끝에 선 전북 농촌에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농진청이 보유한 최첨단 자산과 자금을 바탕으로 '전북 청년농 전용 창업·정착 패키지'와 같은 과격적인 직접 지원책을 신설해야 한다. 청년농의 정착 없이는 전북 농업의 미래도, 농진청의 존재 이유도 성립할 수 없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역시 농진청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진청 예산의 일정 비율이 전북 농업 발전과 지역 생태계 혁신에 직접 투입되도록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농진청과의 협력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내고, 전북의 토양에 맞는 맞춤형 직접 지원 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명시하게 만드는 것이 전북도정이 해야 할 일이다.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전북 도민의 이해와 협조라는 토대 위에 서 있다. 이제 농진청은 '전북 속에 숨겨진 존재하는 중앙기관'이 아닌, 전북 농민의 손을 직접 잡고 도내 농생명 산업을 끌어올리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진청이 전북을 향한 과감하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담대하게 내놓을 때, 비로소 혁신도시 이전의 완성이자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 전북의 위대한 도약이 시작될 것이다.

생명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환자 한 명 한 명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자 삶의 전부다.

그렇기에 119가 도착하기 전 현장에 있는 이웃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아두며,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는 것. 이러한 평소의 작은 준비가 위급한 순간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시민 한 사람이 또 하나의 119가 되는 것이다.

그날 나는 다시 배웠다. 생명을 살리는 힘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위급한 순간에는 누구나 당황하고 망설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내딛는 용기는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상으로 이어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주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1팀장 소방경 정경수

ㅣ 독자투고 ㅣ

시민 한 사람이 또 하나의 119



김정지

며칠 전 탁구 대회한 참가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기장을 누비던 사람이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다. 심정지가 의심되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소방관은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그동안 반복해 온 교육과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눈앞에 놓인 순간, 머릿속에 남은 생각은 하나뿐이었다. '살려야 한다.'

주변에 있던 선수들도 용기를 내 먼저 다가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하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그리고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심정지 상황에서 1분 1초는 매우 중요하다. 반응과 정상 호흡을 확인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하며, 가슴압박을 시작하는 초기 대응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행동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누구나 119의 안내를 받으며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 최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는 한순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재난의 참혹함을 보여줬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재난 소식은 사망자와 실종자 수라는 숫자로 먼저 다가온다. 그러나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으며, 누군가와 함께했던 소중한 일상이 있다. 그날 경기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의

사 설

교육청이 선거 공신들의 '보은 놀이터'인가

전북교육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청이 선거 공신들의 전리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사를 바라보는 교육계와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불법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천사랑방' 관련 핵심 인사들이 대변인을 비롯한 교육청 주요 보직을 속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천사랑방'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와 위법성 여부는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의혹만으로 개인의 불법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교육청 인사는 법적 유·무죄만으로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행정은 어느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더욱이 선거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들이 교육감 취임 직후 핵심 요직에 잇따라 배치된다면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에는 수십 년 동안 학교와 교육행정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교원과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이 전문성과 능력을 쌓으며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선거 캠프와의 인연이 핵심 보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누가 조직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인사에 대한 신뢰

가 무너지면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특히 교육청 대변인과 주요 정책 보직은 교육감 개인의 자리가 아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리이며 전북교육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다.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가 인사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감에게 사람을 쓸 권한이 있다면 그에 앞서 왜 그 사람이 적임자인지를 도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천사랑방 관련 의혹 역시 더 이상 여정정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법 당국은 정치적 고려나 눈치 보기 없이 사전선거운동 등 제기된 의혹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교육감 또한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전북교육청은 선거 공신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곳이 아니다. 교육감은 논란이 된 인사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인사 기준과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잘못된 인사라면 즉각 바로잡고 도민과 교육계에 사과해야 한다. 공정과 청렴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면 교육청부터 공정하고 청렴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전북교육이 아무리 혁신과 변화를 외쳐도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오늘의시

9월의 시 / 문 병 란

9월이 오면
해변에선 벌써
이별이 시작된다
나무들은 모두
무성한 여름을 벗고
제자리에 돌아와
호을로 선다
누군가 먼길 떠나는 준비를 하는
저녁, 가로수들은 일렬로 서서
기도를 마친 여인처럼
고개를 떨군다

울타리에 매달려
전별을 고하던 나팔꽃도
때묻은 손수건을 흔들고
플라타너스 넓은 잎들은
무성했던 여름 허영의 옷을 벗는다
후회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
먼 항구에선
별써 이별이 시작되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
눈물에 젖는다

시인 약력 : 1935년 전남 화순 출생. 1961년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현대문학'에 시 '가로수', '밤의 호흡', '꽃밭'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1990년 만죽작가회의 이사, 1996년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원탁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전남문학상(1979), 요산문학상(1985), 한림문학상(2001)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병란시집'과 '죽순밭에서' 등이 있다. 2015년 타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9월 3일 목요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₂

푸른하늘을 지키는 작은 실천

작은 실천이 늘어나면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063)282-9601 신문구독 -063)282-9600

JBT 전북타임스 신문

남원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우수시군' 선정

시민·기업·단체의 따뜻한 나눔 지역복지 성과로 이어져

남원시(시장 양충모)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했던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서 도내 시(市) 단위 중 유일하게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총 4억 2,197만 1천원이라는 값진 모금 성과를 거두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원시가 명실상부한 '나눔과 상생의 도시'임을 증명해 낸 것이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행정적 평가를 넘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눔을 실천해 온 남원 시민과 지역 기업·기관·단체, 종교계 등 지역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편집자 주〉

모아진 성금은 현장의 수요와 대상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배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으로 스며든다.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 개선을 돕는 지원부터, 시의성 있는 명절 지원금과 월동 난방비, 재난 및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긴급하게 구호하는 손길까지 골고루 닿고 있다.

또한 기부자가 원하는 배분 지역과 용도를 살리는 지정기탁 사업과 더불어,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보호 및 학습·문화체험 지원 등 미래 세대를 품는 사업까지 아우른다. 이처럼 다채롭고 촘촘한 배분 체계는 기부자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고, 수혜자에게는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남원시 고유의 탄탄한 복지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

■ 나눔의 결실로 얻은 포상금, 다시 이웃의 품으로

남원시는 이번 우수시군 선정으로 확보한 포상금 1,500만 원을 기획사업비로 전액 투입하며 '복지의 선순환'을 완성한다. 제도권 지원의 문턱에 가려져 있던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 96가구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하고 온정 넘치는 현장 밀착형 복지를 펼친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희망2026나눔캠페인 우수시군 선정은 남원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따뜻한 성과"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후원자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관협력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신속하게 찾아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작은 나눔이 모여 큰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지역의 복지를 키우는 도시 남원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나눔과 돌봄의 선순환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시민의 나눔이 지역의 복지자원이 된다

희망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남원지역 곳곳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물품 기탁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민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나눔이 곧 돌봄'이라는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깊게 확산시켰다.

시민 한 사람의 작은 나눔과 기업·단체의 지속적인 후원이 모여 지역의 든든한 복지 자원이 되고, 이렇게 마련된 소중한 재원은 다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는 따뜻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남원시는 이 성금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체계적인 배분과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 촘촘한 배분과 현장 중심 지원으로 가치를 더하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 정보

당신의 눈,
전북특별자치도의 힘

전북타임스

신속한 정보, 깊이 있는 분석, 공정한 보도

전북타임스
DAILY NEWSPAPER
since 1950



정확한 뉴스를 지금바로 만나보세요!

구독문의: 063)282-9600~3

홈페이지: www.jeonbuktimes.co.kr